



損保상품 전반에 걸친 확대 · 정착 필요

1. 서언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정책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사회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사회구조도 급속히 산업사회로 변화되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로 첨단기술도입이 늘어나 비례적으로 기업의 자산은 비대해지고 제품은 고급화내지는 고가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같은 물질문명의 팽배는 또 다른 후유증을 잉태하고 이들이 지배하는 영역내에는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이윤추구가 어렵게 되고 기업의 영속성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사회보장적 기능으로서 보험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게 되고 기업은 계속 기업으로 남기 위하여 보험을 선택하게 되며 또한 보험자는 경영활동으로서 위험



이 민 희

〈범한화재보험(주) 위험관리팀 차장〉

을 관리할 필요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위험관리제도의 도입 배경

위험관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국내에 소개되기는 20년 가량 되었다고 알고 있다. 당시의 위험관리는 외국 surveyor에 의한 underwriting기법으로서 국내 손보사 입장에서는 그들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73년 5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업무는 국내에 실질적인 위험관리제도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을 뿐만아니라 뿌리를 내리게 한 원천이 되었다. 왜냐하면 화보험회는 이미 10년전부터 위험관리의 수행과정중 손해의 경감 활동이나 보험인수를 통한 위험의 전가 과정을 주요 시설에 대하여 시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보험회의 공적이 곧 손보사의 위험관리제도 도입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새삼 논할 여지가 없다.

재무부는 1980년도부터 위험관리 업무의 보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 지침을 마련하여 위험관리제도의 확립을 조기 정착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보험공사에서도 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하여 보험업계의 당면과제 해결방안으로서 위험관리 제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는 견해를 제시하는 등 위험관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 결과 각 손보사는 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화보협회의 경력사원을 영입하는 등 위험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외국손보사를 제외한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 및 재보사가 위험관리과를 신설하여 관련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3. 위험관리 업무의 현실

손해보험 산업은 현안문제로서 양적인 고도성장에 비해 경영내실화가 미흡한 점이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 가운데 하나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부족과 보험인수기술의 낙후가 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폴 해체 및 자동차보험 자율화에 따른 과당경쟁은 보험모집 실서를 문란케하여 부당리베이트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청약서작성 위주의 인수방식에 의한 요율 덤핑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위험관리체도로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영업위주 경영방식에 의한 외형 순위경쟁으로 선별인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각 사는 이미 화재특종부 또는 손해사정부내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험관리과를 신설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수조건과 담보범위, 요율의 결정 및 보유의 결정 등을 합리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한편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각 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 위험도조사 보고서의 제공
 -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 기업체를 대상으로한 위험관리 세미나 개최

- 보험 및 사고예방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위험의 성격이 다양화함에 따라 위험관리활동이 보다 심도 있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인적, 물적 배상책임 및 이익, 비용의 손실 등-을 총망라하여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위험관리요원의 경험과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으로는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4. 향후 방향 및 대책

국내 손보업계는 과거 1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1986년도에는 보험료 수입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반면에 화재보험요율의 자율화, 화보 pool 해체, 재보험자율화 등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사 위험관리부서는 업계 공동의 과제로서 아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 보험감독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건의함으로써 업계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하고,

둘째 위험관리는 종합학문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에 대한 지식,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사회전반에 걸친 상식 등을 갖추고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인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끊임없는 훈련과 육성이 요망된다.

세째 개인의 경험이나 기존 자료들은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화보협회 부설 방재시험소의 근착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등 각종 정보매체를 망라하여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무자동화등을 실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네째 위험관리의 초기적 단계로서 현행 서비스 제도에 안주하지 말고 다양하고 설득력있는 서비스 상품의 개발로 기업에 위험관리기법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보험의 신뢰성을 회복하여 복지사회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요원의 투철한 사명감이 정립되어야 한다.

5. 결론

손해보험산업은 양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면에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면도 공존하고 있어 위험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위험관리자는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며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다보면 부수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목표를 세우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보험에 치우쳐 있는 위험관리업무를 가계성 보험에도 확대하여 손해보험상품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체도로 정착시키고 해외재보험 시장이나 재보험 처리과정, 외국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법 습득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대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